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6975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6.

발 의 자 : 정성국 · 김용태 · 김예지
서천호 · 최보윤 · 진종오
윤재옥 · 배준영 · 백종현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.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.

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,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,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,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4조제1항12호 및 제45조제1항11호 개정).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12호 중 “10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제12호에 따른 휴직(이하 “자기개발휴직”이라 한다)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.

제45조제1항제11호 중 “하되,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44조(휴직)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,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| 제44조(휴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|
| 1. ~ 11. (생략) | 1. ~ 11. (현행과 같음) |
| 12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<u>10년</u>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| 12.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 ----- |
| ② ~ ④ (생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⑤ <u>제1항제12호에 따른 휴직(이하 “자기개발휴직”이라 한다)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.</u> |
| ⑤ (생략) |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 |
| 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휴직기간 | 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----- |

| | |
|--|--|
| <p>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11.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 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로 <u>하되, 재직기간 중 한 차 례에 한정한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| <p>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 --<u>한다.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|